



희경루에 담긴 400년 전 인연 창무극으로 되살아나다

26일 시립창극단 '희경루방회도' 공연
16세기 회화 작품에 현대적 상상력 더해
그림·건축·공연예술 잇는 문화콘텐츠

한 점의 그림에 담긴 광주의 시간이 창무극 무대 위에서 되살아난다.

광주시립창극단은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국악의 날을 기념한 특별기획공연 창무극 '희경루방회도'를 선보인다.

창무극 '희경루방회도'는 16세기 회화 작품을 현대 공연예술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이다.

원작 '희경루방회도'(사진)는 1567년 증광시 동기생 다섯 명이 20년 만에 다시 만나 모임을 가진 장면을 담은 회화(契畵)다. 비단 바탕에 채색된 족자 형식의 보물로 전해진다.

이번 공연은 역사적 유산인 희경루와 희경루 방회가 지닌 문화적 의미를 무대예술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희경루는 광주가 무진군에서 광주목으로 복권된 것을 기념해 세워진 누각이다.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2023년 옛 문헌과 '희경루방회도'를 바탕으로 중건됐다. 광주시는 이를 지역 대표 역사문화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한 점의 그림이 건축으로, 건축이 다시 공연예술로 이어지는 문화 콘텐츠의 확장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지역의 역사적 원형을 광주시립창극단의 무대 언어로 재해석하며,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예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다.

작품은 박물관 유리벽 너머 400년의 시간을 품은 채 남아 있는 '희경루방회도' 속 인물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그림 속 네 명의 인연은 각자의 회로애락을 노래하며 다시 무대 위로 소



환된다. 누각의 이름처럼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축하하는 '희경(喜慶)'의 순간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인연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공연 총감독은 김용호 예술감독이 맡았다. 대본 강보람, 연출 유희성, 작곡 강상구, 작창 송재영, 안무 채항순 등 국악계를 대표하는 제작진이 참여했다.

김용호 총감독은 "‘희경루방회도’는 과거의 기록을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린 창작 작품"이라며 "무형의 역사적 자산이 무대 위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 관객과 함께 기뻐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연이 광주의 역사와 현재를 잇는 문화적 가교가 돼 도시와 시민이 서로를 깊이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 초연 이후에도 '희경루방회도'는 서울과 부산에서 관객과 만난다. 오는 9월17-18일 서울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열리는 세계음악극 축제(WTIF)에 참가하며, 9월25일에는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교류공연으로 선보인다.

광주시립창극단은 이번 작품을 지속적인 레퍼토리로 발전시켜 전국 순회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의 대표 문화유산인 희경루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전국

에 알리는 브랜드 공연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최명진 기자

시·노래·유머 넘치는 '힐링콘서트' 성료



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공연은 차미경의 '연정', '사랑이 비를 맞아요' 무대로 문을 열었다. 이어 가수 오세요의 '정춘화살' '단심이', 가수 문신호의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는 나의 인생' 공연이 펼쳐졌다.

양석승 소장은 '고향무정', '홍도야 울지마라'를, 전유장씨가 각설이 무대로 '광대', '사주팔자'를 선보였다.

공연의 대미는 가수 금초의 '자갈치 아저씨', '세월이 너만 가거라' 무대로 마무리됐다.

/최명진 기자

한국 감성 충전&웃음 치료 연구소 양석승(전 광주대 교수·사진) 소장의 시와 노래, 유머가 넘치는 제47회 빛고을 힐링콘서트가 10일 오후 신안동 7080국민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동아시아 '향약'으로 살펴본 전통 공동체 문화

내일 한국학호남진흥원·전남대 인문융합연구원 학술대회

동아시아 전통 공동체 문화의 역사적 맥락과 지속성을 살펴보는 국제학술대회가 전남대학교에서 열린다.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전남대 인문융합연구원은 오는 12일 오후 1시 용봉문화관(박물관) 4층 시청각실에서 '동아시아 기록유산을 통해 본 향약의 공동체 문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중국·일본의 향약 관련 기록유산을 비교·검토하고 동아시아 전통 공동체 문화의 역사적 맥락과 지속성을 다학제적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약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치 규범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운영해 온 전통적 사회 조직이다.

국내의 연구자 6명이 발표와 지정토론에 참여해 향약 연구의 다양한 쟁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향약의 핵심 논쟁점과 연구사적 의미를 짚어준다. 장사

오포 안후이대학 휘학연구센터 연구원은 명청대 회주 향약의 기층 통치 논리를 분석한다. 나가모리 미즈노부 일본 덴리대학 교수는 일본의 향약 관행과 조선 투항 왜인 집단의 향약 운영 사례를 비교한다.

이어 정수환 국립금오공과대 교수는 광주 지역 동계 운영 실태를 통해 향촌 공동체의 자치 역량을 조명한다.

김경옥 국립목포대 교수는 근현대 전환기 구립대동계의 기능 유지 과정을 고찰한다. 이광우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은 먼 단위 향약·계 조직의 유형과 성격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동아시아 향약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확인해 학계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약·동계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상여에 실은 삶 이야기, 소리로 되살아나다

13일 국립남도국악원 토요상설공연

삶의 마지막 길을 함께 배웅하던 공동체의 소리가 한자리에 모인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진악당에서 2026 토요상설공연 '국악이 좋다' 기획공연 '상여(喪輿), 삶을 신고 흐르다 - 상여소리'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사라져 가는 토속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삶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던 공동체 문화인 상여소리를 통해 지역마다 다른 소리와 장단, 상여 문화를 한자리에 소개한다.

공연의 문은 점촌상여소리보존회의 '문경점촌상여소리'가 연다.

경북 문경시 점촌동 일원에서 전승돼 온 상여소리로, 호운을 시작으로 하직소리, 대더듬, 삼신굿풀이, 출상(상주가두기), 동뭍 지나가기, 바위 지나가기, 논두렁 지나가기, 돌다리 건너기, 외나무다리 건너기, 달고소리까지 총 12마당 9가지 소리를 선보인다.

이어 고양상여소리보존회(사진)가 '고양상여·회다지소리'를 들려준다.

하관 후 관 주변에 흙을 넣고 다질 때 부르는 민요로, 땅자혜원발원문을 비롯해 발인축, 긴



염불소리·하직소리, 긴상여소리·남차소리·염불소리·젓은상여소리, 달고소리 등을 무대에 올린다.

마지막 무대는 진도만가보존회의 '진도만가'가 장식한다.

남도 지역 특유의 육자배기토리를 바탕으로 한 만가로, 사물악기 장단과 함께 망자와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소리를 전한다. 축원의 소리(진양조)를 시작으로 애소리(중모리), 하직소리(중모리), 다리천근소리(중모리), 나무야 미타불(중중모리), 다구질소리(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CBS 라디오

아침 시사의 새로운 중심

박성태의 뉴스쇼

월~금 07:10~09:00

인공지능이 가장 뛰어난 뉴스쇼

FM 98.1 MHz

CBS 표준FM

CBS RAINBOW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YouTube